

제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고 광 명 제주대학교 진 관 훈 제주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제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공헌 현황과 특질을 해명하는 데 있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일 제주인은 지역별 분포에서 북제주군 출신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대관지역에서 상공업 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업 형태별로는 주식회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제주 상공인은 다른 기업 형태에 비해 주식회사 형태로 상공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연령별로는 60대 연령이 가장 많고, 이들 대부분은 현재까지 후계자를 결정하지 않고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신발, 플라스틱, 봉제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상공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일 제주인들의 기증은 지역사회 개발, 교육 발전, 마을 발전을 비롯한 제주도 전반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음은 물론 사적인 영역에서의 생활상태 개선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제일 제주인들의 기증 실적을 시기별로 관찰하면 규모 면에서 축소되고 있고 기증물과 기증선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따뜻한 인간적 관계나 교감 없이 제주를 향한 투자나 기증만이 제주인의 관심사였고, 여기에 제일 제주인들은 허탈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런 연구 결과는 제주 사회와 제일 제주인 사회가 불신과 갈등을 넘어, 서로의 인적·물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주 제 어

제일 제주인, 상공업 활동, 지역사회 공헌

I. 머리말

제주도 인구는 한국 전체 인구의 1.2%에 불과하지만 재일(在日) 한인 인구수에서 차지하는 재일 제주인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5년 현재 재일 제주인은 제주도 인구 54만7,964명의 19.6%로서 일제시대 이후 지금까지 많은 제주인이 일본으로 이주했다. 그들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견디다 못해, 혹은 43과 전쟁을 피해 그리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처럼 재일 제주인은 한인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으며, 친목단체 등과 같은 비공식조직이 잘 형성되어 있고, 지연·학연·혈연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강하게 지속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고선희, 1998). 이런 인적 네트워크 하에서 재일 제주인들은 이주 초기에 차별과 핸디캡 등으로 인해 야키니쿠(焼肉), 파친코, 토목건축업 등에 주로 종사했으나 현재에는 무역, 금융, IT분야의 하이테크 산업에까지 진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재일 제주인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들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의 학문적 관찰을 도모하려고 한다.

우선 일본 사회에서 활동한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을 파악하고 경영 현황과 특질을 해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재일 제주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 후 關西濟州道民協會, 『關濟會10年の歩み』(2004)의 회원 명단에 수록되어 있는 관서지역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을 파악하여, 이것이 지닌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은 이런 재일 제주인들의 일본에서의 상공업 활동을 바탕으로 한 고향 제주에의 물질적 공헌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재일 제주인들의 고향인 제주도에의 물질적 공헌(이하 ‘寄贈’이라 함)은 제주도·제주도민들과의 물질적 관계를 기초로 하는 혈연적 결연관계 혹은 일방적인 물적 교류를 의미한다. 이런 재일 제주인들의 고향에의 기증은 재일 제주인들의 애향심, 고향 제주와의 연대, 제주도민과 재일 제주인과의 동반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 기제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제주인들의 기증 실적을 살펴보는 것은 재일 제주인과 제주도간의 사회적 결합의 강도를 통계적으로 파악해 본다는 의미가 있다(小川伸彦·寺岡伸梧, 1995: 89).

이상의 두 가지 학문적 작업을 통해 재일 제주인들의 일본과 제주에서의 경제적 활동을 부분적으로나마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은 II장에서 재일 제주인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III장에서는 재일 제주인의 업종과 상공업 활동을 고찰한다. 이를 기초로 IV장에서는 재일 제주인의 지역사회 공헌을 서술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재일 제주인의 의미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매우 다양하다. 즉 제주 출신 재일동포, 제주 출신 재일교포, 재일 제주 출신자, 제주 출신 재외교민, 교민사회 등이다. ‘재일(在日)’을 규정하는 것이 국가 시스템에 따른 한국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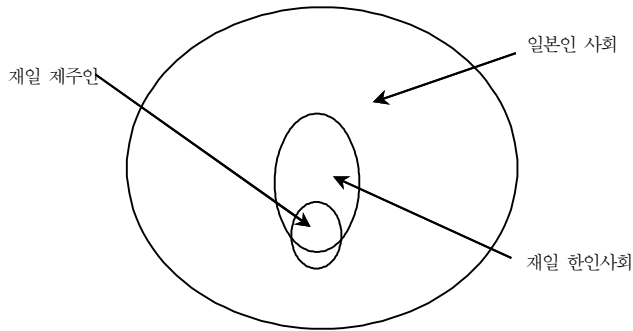
조선(북한)이라는 국적 표시인지, 또는 우리와 같은 혈통인지, 또는 역사나 문화에 얽힌 의식인지, 나아가서 제일 한인의 권리 획득을 위해 싸우는 존재인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수 있다(윤건차, 2002).

이에 대해 제주발전연구원(2000)에서는 제주인 개념을 범제주인으로 설정하고 범제주인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6개로 구분하고 있다. ① 본적지가 제주도이고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원도민, ② 본적지가 제주도지만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도민, ③ 타 지역에서 출생했지만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는 타 지역 출신 제주인, ④ 교포 2·3세를 비롯한 제주인의 자녀, ⑤ 제주인의 배우자, ⑥ 제주도에서 공식 생활을 하면서 제주도의 발전에 이바지한 명예도민 등이다. 이 범제주인의 개념에 따른다면, 제일 제주인은 본적지가 제주이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2, 3세 등)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를 위해 1980년 이전 도일하여 일본에 귀화한 자나 2세, 3세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까지 확대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현재 제일 제주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인 사회 속에서 제일 한인으로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다른 본적지 지역 출신자에 비해 제주도 출신자인 경우 강한 지역성을 표출하는 이중구조 성격을 지니고 있다(그림 1 참조). 예를 들면 1925년 이쿠노구(生野區)에는 다른 지역 출신의 한국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제주인들은 이들로부터 '섬놈'이라는 이유로 멸시당하는 이중적 차별을 일본인 사회에서 감수해야만 했다. 이들은 '아리랑단'이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제주 출신들에게 수많은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제주인들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저력으로 지금의 제일 제주인 사회를 형성해왔다.

한편 제주도와 제일 제주인의 이면성이란 관점에서 보면 과거 일본으로 이주한 제일 제주인은 일본 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제주 문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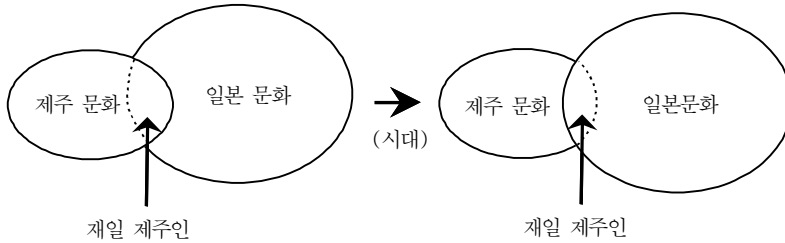
그림 1 일본 속의 제주인(이중구조)



출처: 양성종(2005)

지키려는 의식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제주 문화를 의식하고 간직하기보다는 일본 문화에 흡수되어 생활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그 원인은 해방 이후 60년 세월이 흐르면서 재일 동포사회의 세대교체가 착실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세대별 구성비율을 보면 1세 6%, 2세 37%, 3세 48%, 4·5세가 9%를 차지한다. 그 가운데 재일 제주인 사회도 현재 1세부터 2세, 나아가 3세, 4세로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식과 가치관, 생활형태가 다양화되고, 민족교육을 받는 동포 자녀가 격감하는 가운데 일본 국적 취득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재일 제주인을 포함한 재일 한인은 비야호로 국적이나 혈연, 의식 상태나 세대교체 등의 측면에서 복합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동천, 2005). 또한 세대교체와 더불어 재일 젊은이들은 동포끼리의 결혼을 바라면서도 실제로는 일본인과의 국제결혼이 92% 정도에 달하고 있다. 일본은 1985년 이래 부모양계 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일본인과의 국제결혼으로

그림 2 제주도과 제일 제주인(이면성)



출처: 양성중(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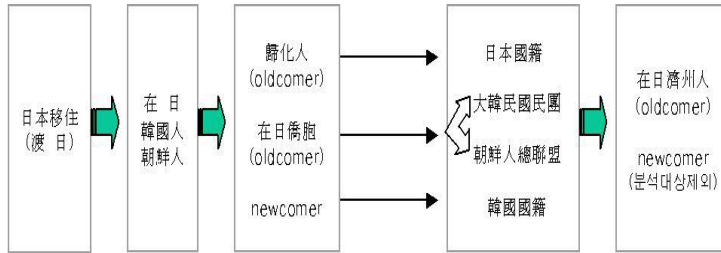
태어난 자식들은 자동적으로 일본과 한국·조선의 이중 국적 상태가 되며 대부분의 자식들은 최종적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최근 일본에서의 제주인들은 1세가 온갖 차별과 멸시 속에서 피와 땀으로 제일 제주인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대를 살았다고 한다면, 2세는 이런 기반을 토대로 일본 속의 제주인 사회를 보다 공고하게 형성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일 제주인 3세도 대한민국의 재외 국민으로서 일본 사회에서 그들이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일 제주인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제일 제주인은 제주도 출신자로 일본 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공업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제일 제주 상공인도 그 대부분이 생업을 위해 상공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吳圭祥, 1992). 그림 3은 1980년대 전후(前後)의 일본에서 제일 한인사회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1980년 이후 제일 한인 중에 뉴커머(newcomer)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林永彦, 2004). 제일

한인은 그림 3과 같이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1980년 이전 비자발적, 강제적으로 일본으로 이주한 올드커머(oldcomer)인 재일 제주인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단 1980년 이후 유학, 단기 체류, 기업가, 비합법적 노동자 등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자발적으로 이주한 뉴커머(newcomer)인 재일 제주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림 3 재일 한인과 제주인의 분류



출처: 林永彦(2004), 『韓國人企業家』에 기초하여 연구자 작성.

2. 재일 제주인 관련 기존 연구

재일 제주인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주로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이문웅(1998)은 재일 제주인 사회의 형성과 특성을 타 지역 출신의 재일 한인사회와의 비교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이외에 재일 제주인의 이주 역사와 일본에서의 삶을 묘사한 연구로는 신행철(1997), 杉原達(1998), 高鮮徽(1996, 1998) 등이 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현지조사와 참여관찰기법을 사용한 문화인류학적 연구라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들은

지나치게 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재일 제주인 사회에 대한 피상적 접근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한편 이런 연구 환경 속에서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을 다룬 국내 연구로는 고동훈(1999) 정도이다. 이 연구는 소규모이며 단편적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일 제주인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그것을 재일 한국인에게도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외에 고광명(2004, 2005)은 在日韓國青年商工人連合會, 『在日韓國商工人の現状と課題をさぐる』(1989)와 關西濟州道民協會, 『關濟會10年の歩み』(2004)의 2차 자료를 갖고 분석하여 자료수집에 따른 한계를 안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자료를 보다 다양하게 확대시키고 다른 지역 상공업 활동과의 비교를 통해 연구결과를 보완시키면서 일반화시키는 노력이 요망된다.

또한 재일 제주인 사회를 인적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설명한 논문으로는 小川伸彦·寺岡伸悟(1995)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진관훈(2005)은 小川伸彦·寺岡伸悟(1995)의 인적 네트워크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재일 제주인의 기증 현상을 분석했다.

이처럼 재일 제주인 관련 연구는 주로 문화인류학, 민속, 역사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사실상 경제학, 경영학적 접근은 거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재일 제주인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사회적 현상을 밝히기 위한 경영경제사적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본 연구는 제주경영·경제사의 관점에서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III. 재일 제주인의 업종과 상공업 활동

1. 재일 제주인의 업종

재일 한인 총수는 2005년 현재 63만2405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조선반도의 경상남도 19만1293명(30.25%), 경상북도 13만7727명(21.78%) 등의 출신자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표 1 참조). 그 중에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 제주인은 2005년 기준으로 10만7666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재일 한인 총수의 17.02% 정도를 차지한다. 여기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귀화자를 포함하면 재일 제주인은 그 이상이 될 것이다.

현재 제주도 인구가 전국 인구의 1%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재일 한인사회에서 재일 제주인들의 중요성과 활약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재일 제주인들은 동경을 중심으로 한 관동지역과 대판을 중심으로 한 관서지역에만 전체의 9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주한다. 관서지역에는 재일 제주인 전체의 6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주로 대판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특히 대판의 이쿠노구(生野區)는 제주도 출신들이 밀집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일본 속의 제주'라고 일컬어지며, 츠루하시(鶴橋) 옆의 모모타니(桃谷)에는 '코리아 타운(Korea Town)'이라 불리는 곳에 재일 제주인들이 운영하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김동전, 2005).

표 2는 2001년 현재 제주도 출신자의 업종과 비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제주도 출신자의 동경지역의 업종 분포를 보면 음식업이 27%를 차지하고 있어 가방제조업의 21%보다 다소 많은 편이며, 다음으로 신발제조업이 16%, 오락업이 15%, 음식업이 10%, 기타 11%로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전체 재일 한국인의

표 1 제일 한인의 본적지별 구성 현황(2005년)

(단위: 명, %)

본 적	제일 한인수	비율
서울	53,242	8.42%
부산	24,038	3.80%
광주	1,897	0.30%
대전	1,550	0.25%
경기	21,380	3.38%
충남	11,829	1.87%
충북	10,031	1.59%
전남	45,361	7.17%
전북	11,302	1.79%
경남	191,293	30.25%
경북	137,727	21.78%
강원	4,606	0.73%
제주	107,666	17.02%
불 상	1,724	0.27%
북 한	3,373	0.53%
기 타	5,386	0.85%
총 수	632,405	100%

출처: 제일본대한민국민단본국사무소. 2005. "민단소개—제일동포소개."

<http://www.mindan.org.kr>(검색일: 05/02/25).

업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반면 대관지역의 업종 분포를 보면 신발제조업이 20%를 차지하고 있어 음식업의 17%보다 많은 편이며, 다음으로 오락업이 17%, 건설업이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동경지역에서는 음식업과 가방제조업, 대관지역에서는 신발제조업, 음식업, 건설업 등이 주로 제주도 출신자들의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다. 종업원 수에서는 10명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소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고, 이들 대부분이 일본 중소기업의 하청에 속하는 영세 상공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살펴볼 때, 1980년 이전 일본으로 이주한 재일 제주 상공인은 거의 재일 1세들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음식업과 가방제조업, 신발제조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재일 제주인은 처음에는 단순한 신발공장, 고무공장 등 제조업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기계설비, 조선업, 관광업 등에서 일본인 회사와 경쟁할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재일 제주 상공인들은 재일 1세 상공인들이 가족들에게 경영권을 계승하고 제 2선으로 물러나면서 지금은 재일 2세, 3세들이 전면에 나서 상공업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재일 제주 상공인들은 재일 한인 경제의 실권을 장악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했으며 제주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 지역별 제주도 출신자의 업종과 비율

(단위: %)

동경 지역	업종	신발 제조업	가방 제조업	봉제업	음식업	오락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비율	16	21	-	27	15	-	10	11	100
대관 지역	업종	신발 제조업	플라스틱 제조업	봉제업	음식업	오락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비율	20	7	10	17	17	15	4	17	100

출처: 高東勳

(2001).

2.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

본 연구는 關西濟州道民協會(2004)에서 발간한 『關濟會10年の歩み』에 수록된 회원명단을 기본적인 원자료(raw data)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원자료는 재일 제주 상공인에 대한 개인이력서에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관련된 기본 정보 이외의 보다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본 자료는 關西濟州道民協會(2004), 『關濟會10年の歩み』를 이용하여 회원명단에 수록되어 있는 관서지역의 제주 상공인을 주요 대상으로 수집된 248명을 집계 분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지역별과 연령별, 업종별과 기업 형태별, 기업 형태별과 연령별, 업종별과 연령별로 나누어 표 작업을 실시했다.

1) 지역별·연령별 분포

재일 제주 상공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가 92명(37.0%)을 차지하고 있어, 70대 54명(21.8%)보다 많은 편이며, 다음으로 50대 49명(19.7%), 40대 28명(11.3%)이다. 지역별로는 북제주군이 105명(42.3%)을 차지하고 있어, 남제주군 65명(26.2%)에 비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 요인 등으로 인해 많은 북제주군 출신자들이 일본으로 이주하여 대관지역에서 상공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표 3 참조).

2) 업종별·기업 형태별 분포

재일 한인 상공인의 기업 형태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회사나 자영업, 개인상점까지를 포괄한다. 이 한인 상공인들 중에는 수백 명을 고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영업자 혼자이거나 혹은 가족 종사자

표 3 지역별·연령별 분포

(단위: 명)

지역/연령	90대 이상	80대 이상	70대 이상	60대 이상	50대 이상	40대 이상	30대 이상	20대 이상	계
제주시	2	2	7	24	11	7	2	0	55
서귀포시	0	2	8	9	3	1	0	0	23
북제주군	0	5	20	42	22	11	5	0	105
남제주군	1	3	19	17	13	9	2	1	65
계	3	12	54	92	49	28	9	1	248

출처: 關西濟州道民協會(2004), 『關濟會10年の歩み』에 의거하여 조사 작성.

표 4 업종별·기업 형태별 분포

(단위: 명)

업종/기업형태	개인	공업소	유한회사	주식회사	기타	계
건설업	0	1	1	9	2	13
제조업	8	34	4	70	3	119
판매업	5	1	3	18	0	27
음식업	3	0	1	2	1	7
파친코	0	0	1	15	0	16
호텔	0	0	1	1	0	2
금융업	0	0	0	2	0	2
부동산업	2	2	4	24	0	32
재생자원산업	1	0	0	3	0	4
기타 서비스업	1	0	2	13	0	16
기타	1	0	3	4	2	10
계	21	38	20	161	8	248

출처: 關西濟州道民協會(2004), 『關濟會10年の歩み』에 의거하여 조사 작성.

만으로 경영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제일 제주 상공인 중에는 수백 명 규모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 혹은 주식시장에 상장해도 손색이 없는 경영자가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지역에서 4~5명 정도 작은 공간에서 영업하는 상점 주인도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 형태별로는 주식회사가 161명(64.9%)을 차지하고 있어 공업소의 38명(15.3%)보다 많은 비중이며, 다음으로 개인이 21명(8.5%), 유한회사가 20명(8.1%)으로서 주식회사가 전체 상공업 중에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9명(47.9%)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업의 32명(12.9%)보다 훨씬 많은 비중이며, 다음으로 판매업이 27명(18.8%), 파친코업이 16명(6.4%)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제조업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 기업 형태별·연령별 분포

제일 제주인이 경영하는 상공업 대부분은 일본의 기업 형태 분류상 중소기업에 속하기보다는 영세 상공업에 포함되어 있다. 영세 상공업은 생업을 위한 상공업이라 보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므로 상공인 중에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익, 이윤을 얻기 위해 상공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람도 당연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일 제주 상공인이 참여한 상공업 총 248명 중에서 연령별로는 60대가 92명(37.1%)을 차지하고 있어 70대의 54명(21.8%)보다 많은 편이며, 다음으로 50대가 49명(19.7%), 40대가 28명(11.3%) 순으로 나타나므로 제주도 출신자로서 제일 제주인 1세에 해당되는 연령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기업 형태별로 보면 주식회사가 161명(64.9%)를 차지하고 있어 공업소의 38명(15.3%)보다 훨씬 많은 편이며, 다음으로 개인 21명(8.5%), 유한회사 20명(8.1%)으로 대부분의 60대 제주 상공인이 주식회사 형태로 상공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기업 형태별·연령별 분포

(단위: 명)

기업형태/연령	90대 이상	80대 이상	70대 이상	60대 이상	50대 이상	40대 이상	30대 이상	20대 이상	계
개 인	0	1	3	11	4	2	0	0	21
공 업 소	0	1	7	19	7	2	2	0	38
유한회사	1	0	3	6	3	5	2	0	20
주식회사	2	10	38	52	34	19	5	1	161
불 명	0	0	3	4	1	0	0	0	8
계	3	12	54	92	49	28	9	1	248

출처: 關西濟州道民協會(2004), 『關濟會10年の歩み』에 의거하여 조사 작성.

4) 업종별·연령별 분포

표 6은 제일 제주 상공인의 업종별과 연령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9명(48.0%)을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의 32명(12.9%)보다 상당히 많은 편이며, 다음으로 판매업이 27명(10.9%), 파친코업 16명(6.5%)으로 분포되어 있다.

즉 제일 제주 상공인은 60대 이상으로 제조업 등에서 가장 많은 상공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80대 이상 제주 상공인이 15명으로 나타난 것은 후계자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채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표 6 업종별·연령별 분포

(단위: 명)

업종별/연령	90대 이상	80대 이상	70대 이상	60대 이상	50대 이상	40대 이상	30대 이상	20대 이상	계
건설업	0	0	0	7	5	1	0	0	13
제조업	1	7	24	45	25	11	6	0	119
판매업	0	1	10	6	6	3	0	1	27
음식업	0	2	2	1	0	2	0	0	7
파친코	1	1	2	6	5	1	0	0	16
호 텔	0	0	0	1	0	1	0	0	2
금융업	0	0	1	1	0	0	0	0	2
부동산업	0	1	7	17	3	3	1	0	32
재생자원산업	0	0	1	2	1	0	0	0	4
기타 서비스업	0	0	5	3	3	4	1	0	16
불명	1	0	2	3	1	2	1	0	10
계	3	12	54	92	49	28	9	1	248

출처: 關西濟州道民協會(2004), 『關濟會10年の歩み』에 의거하여 조사 작성.

IV. 재일 제주인의 지역사회 공헌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재일 제주인들의 ‘기증(寄贈)’ 실적은, 제주도청 홍보과에서 추산한 1960년대부터 1990년까지의 기증 실적 중 제주도청과 각 시군 교육청, 대학, 체육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한 제주도(1991)와, 『애향의 보람: 재일동포 기증 실적』(1990, 1999)에 수록된 기증 실적 중 누락 부분과 추가로 파악된 사항을 첨가한 제주도(1999, 증보판)에

기초하고 있다. 이후 2000년부터 2005년 2월까지의 재일 제주인의 기증 실적은 제주도 내 일간지를 검색하여 정리했고, 이외에 재일본제주도민회(1993)와 재일본제주개발협회(1991)를 근거로 작성했다. 이상의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총 6,054건의 재일 제주인의 기증 실적을 개관, 기증물, 기증선, 기증측 등의 관점에서 정리하여 표로 작성했다. 이 자료들에 수록되지 않은 개인, 친족, 종친회, 친목회 수준의 기증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으므로, 이들까지 포함하면 재일 제주인의 기증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2. 재일 제주인의 기증 실적 개관

이 절에서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재일 제주인의 기증 실적을 연도별 지역별 기증 건수와 연도별·사업별 기증 건수를 개관함으로써 재일 제주인의 기증 현황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개괄한다.

표 7을 보면, 1973년과 1974년을 전후로 하여 재일 제주인의 기증 건수가 가장 많다. 특히 1973년에 470건인데, 이중 남제주군이 190건, 북제주군 140건 등이다. 이 시기에는 북군과 남군 지역의 새마을사업 성금, 마을 전기, 도로가설, 지역초등학교 전기·수도가설, 도로정비 사업, 리 사무소 소비품, 초등학교 도서, 새마을회관 건설 등 지역사회 공헌이 붐을 이루었다. 1984년에는 262건인데, 이는 제주 최초로 전국소년체전이 제주에서 개최되었고, 그에 따라 재일 제주인들에 대한 도 단위, 체육회 단위의 지역사회 기증 요청이 컸고 이에 대한 부응도 활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0년 149건, 1991년 168건 이후에는 절대적인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일본 경제의 버블화 및 계속된 장기 침체 현상과 더불어 재일 상공인들의 종사업종 중 상당 부분이 경기 변동에

표 7 연도별·지역별 기증 건수 추이

(단위: 건)

연도별\지역별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
1966년 이전	27	154	175	303	258	917
1967	5	34	28	81	54	202
1968	5	26	10	58	48	147
1969	4	23	61	76	56	220
1970	17	26	24	27	52	146
1971	12	27	26	65	89	219
1972	32	39	36	105	49	261
1973	47	43	43	140	197	470
1974	24	48	43	107	116	338
1975	8	31	29	125	66	259
1976	12	46	16	53	68	195
1977	6	24	11	101	23	165
1978	14	24	29	53	48	168
1979	10	14	15	72	61	172
1980	17	62	12	69	67	227
1981	9	19	5	55	51	139
1982	23	10	18	46	37	134
1983	4	4	10	35	29	82
1984	205	10	4	30	13	262
1985	14	1	6	39	17	77
1986	2	7	40	35	23	107
1987	5	5	6	44	42	102
1988	19	16	7	73	26	141
1989	16	9	9	31	34	99
1990	36	11	42	42	18	149
1991	8	12	9	126	13	168
1992	9	11	5	23	8	56
1993	17	15	6	44	5	87
1994	4	11	0	11	2	28
1995	5	4	4	76	7	96
1996	1	4	0	26	14	45
1997	2	4	2	12	7	27
1998	5	6	1	31	1	44
1999	7	2	1	62	4	76
2000-2004	7	4	9	7	2	29
합계	638	786	742	2,283	1,605	6,054

표 8 연도별·사업별 기증액 추이

(단위: 천 원)

연도별 사업별	교육사업	공공사업 (새마을사업)	문화·복지사업	기타	합계
1966까지	166,758	47,939	23,522	3,489	241,708
1967	32,912	14,885	22,856	1,366	72,019
1968	28,573	5,435	16,510	1,995	52,513
1969	48,152	3,733	17,329	1,160	70,374
1970	16,701	27,290	29,458	5,463	78,912
1971	14,477	12,796	34,080	4,344	65,697
1972	28,336	33,406	7,057	5,593	74,392
1973	35,558	100,771	51,696	17,084	205,109
1974	54,745	79,612	29,916	19,717	183,990
1975	17,558	57,639	21,448	10,238	106,883
1976	52,114	70,105	16,414	6,462	145,095
1977	31,931	87,549	8,260	7,130	134,870
1978	45,290	82,897	18,377	13,880	160,444
1979	40,609	63,710	10,710	13,141	128,170
1980	96,061	165,317	2,280	20,582	284,240
1981	90,242	57,125	8,480	7,380	163,227
1982	193,930	56,035	10,094	4,147	264,206
1983	148,818	31,170	770	3,060	183,818
1984	554,729	1,630,120	10,200	3,350	2,198,399
1985	3,879,777	367,900	5,690	55,671	4,309,038
1986	81,230	160,200	85,441	10,055	336,926
1987	197,109	282,153	45,300	46,542	571,109
1988	1,326,620	403,330	52,198	31,406	1,813,554
1989	268,283	701,120	94,683	51,660	1,116,283
1990	452,610	554,110	41,965	206,276	1,254,951
1991	507,066	218,370	7,905	9,475	742,816
1992	238,191	238,391	44,300	9,000	6,500
1993	176,688	327,500	36,100	13,400	553,688
1994	246,044	6,500	20,050	8,400	275,994
1995	1,281,946	356,960	0	2,100	1,646,006
1996	82,112	403,800	5,800	12,300	504,012
1997	510,668	77,400	1,000	16,650	605,718
1998	6,826,879	235,800	1,500	9,500	7,073,679
1999	1,568,925	261,100	0	42,500	1,872,525
2000~현재	1,002,700	2,855,700	53,700	2,000	3,914,100
합계	20,344,342	10,077,868	835,089	676,516	27,496,865

민감한 분야라는 점, 제주 사회에서의 지역사회 공헌 요청과 기대가 투자 형식으로 변환되었다는 점, 제주지역의 경제력과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표 8에서 연도별·사업별 기증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교육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공사업, 즉 새마을 사업과 같은 분야에 대한 기증이 가장 활발했다. 특히 1980년 이후, 1990년대 교육사업 분야가 두드러지는 것은 기증 초기 생활시설 사업, 생활향상 수준에서 벗어나 제주도 경제가 발전됨으로써 교육 분야와 같은 미래지향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기증 동기 역시 초기 동정적 애향심, 경제적 우월성에서 벗어나 경제적 성취에 대한 과시, 사회적 명예, 체면 등이 더 크게 작용했음을 추측케 한다.

3. 기증물의 변천

이 절에서는 기증의 주목적을 분석하기 위해 기증물 용도의 시대적 변천을 살펴본다. 기증물의 변천과정은 기증의 구체적 표현만이 아니라 기증수혜자의 기증에 대한 인식까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표 9에서 분야별 기증 건수를 살펴보면, 교육문화 분야가 38.93%로 가장 많고, 친목단체 육성이 32.04%로 다음 순이다. 친목단체 육성 분야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현상이며 교육문화 분야는 1990년 이후 특히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개인적, 지역적 단위에서 주로 생활향상을 위한 경제적 원조, 동정의 차원에서 사회적 명예, 체면, 도 단위의 발전,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초점이 이동했음을 나타낸다. 이외 한라문화제, 전국소년체전 등에 대한 지역사회 공헌도 활발하다. 공공행정은 지자체 비품, 운영비이며, 이 분야 역시 사회적 체면,

표 9 분야별 기증 건수

(단위: 건, %)

분야별	기증 건수	비율
교육·문화	2,357	38.93
공공·행정	660	10.91
산업·개발	504	8.33
새마을사업	406	6.70
보건·복지	119	1.96
친목단체·육성	1,940	32.04
화재·기타	68	1.10
합 계	6,054	100.0

위신, 사회적 입지 향상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1970년도 초기 새마을사업 외에 산업개발 분야가 상당히 적은 것은 1990년 이후 투자의 형식으로 전환된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재일 제주인의 기증이 제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요약하면, 초기에는 실질적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생활개선, 경제성장의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었고, 점차 지역사회 개발, 관광, 새마을사업에 기여했으며, 이후 교육, 문화, 체육 분야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지역사회 공헌과 투자 현상이 혼재돼 나타나기도 한다.

표 10에서는 재일 제주인 기증을 용도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용도별로 보면, 부동산·시설 건축(37.5%), 비품류(29.3%), 기금·운영비(23.7%) 순이다. 부동산이나 시설 건축은 1970년대 이후 새마을사업과 함께 붐을 이루었던 마을 단위 복지관, 마을회관 건립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마을, 각급 학교의 비품류 등이다. 이는 대부분 재일 제주인들이 마을 단위 친목회의 노력, 즉 재일 제주인의 인적 네트워크 영향과 제주에서 친족, 친지의 요청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 이후에는 제주대학교 등의 발전기금 증가와 마을 단위, 마을 내 조직의 운영비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표 10 용도별 기증 건수

(단위: 건, %)

용도별	기증 건수	비율
부동산·시설 건축	2,268	37.5
비품류	1,774	29.4
기금·운영비	1,435	23.7
위문·복지	224	3.7
도서	200	3.3
기념물 건립	134	2.2
기타	19	0.3
합계	6,035	100.0

표 11를 통해 용도별 기증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제일 제주인들의 기증 물품은 제주도의 생활 향상에 전반적으로 기여하는 물품이다. 구체적으로 1960~70년대의 상하수도, 전기, 전화, 도로 각급 학교 물품 기증이 감소하고 점차 문화제, 묘지 기금, 생존에서 벗어난 생활의 질적 향상 측면이 강화되는 특성들을 볼 수 있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보면, 예를 들면 전국소년체전 등과 같은 경우, 이에 대한 집중적인 기증이 이루어졌고 제주도의 경제적 향상에 맞춘 기증의 변화도 나타난다. 이런 것 이외에 사회복지의 강조, 즉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운영비 증가도 나타나며, 기관별로는 2000년대 이후 제주대학교의 발전기금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용도별 기증 건수 추이

(단위: 건, %)

용도별\연대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현재	합계
부동산·시설	728 (32.10) <48.99>	791 (34.88) <33.05>	360 (15.88) <26.27>	386 (17.02) <49.74>	3 (1.12) <10.34>	2,268 (100.0) <37.47>
비품류	590 (33.26) <39.70>	756 (42.62) <31.59>	372 (20.97) <27.15>	55 (3.10) <7.08>	1 (0.06) <3.44>	1,774 (100.0) <29.31>
도서	67 (18.72) <4.50>	56 (15.65) <2.34>	80 (22.35) <5.83>	153 (42.74) <19.71>	2 (0.05) <6.89>	358 (100.0) <0.59>
기금·운영비	99 (0.69) <6.66>	721 (50.25) <30.12>	551 (38.40) <40.21>	52 (3.63) <6.70>	12 (0.08) <41.37>	1,435 (100.0) <23.71>
위문·복지	2 (3.13) <0.13>	0	5 (7.82) <0.36>	54 (84.38) <6.95>	3 (4.69) <10.34>	64 (100.0) <1.06>
기념물 설립	0	69 (51.50) <2.88>	2 (1.50) <0.14>	55 (41.05) <6.95>	8 (5.97) <27.58>	134 (100.0) <2.22>
기타	2 (7.15) <0.13>	0	5 (17.86) <0.36>	21 (75.00) <2.70>	0	28 (100.0) <0.04>
합계	1,486 (24.55) <100.0>	2,393 (39.53) <100.0>	1,370 (22.63) <100.0>	776 (12.82) <100.0>	29 (0.04) <100.0>	6,054 (100.0) <100.0>

4. 기증선의 변천

이 절에서는 제주도 내 행정 단위별 기증액의 연대별 흐름을 살펴보려 한다. 즉 도 단위 기증과 군 단위 기증의 비교이다. 이런 비교 분석은 일본 내 제주인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표 12 지역별 기증액 추이

(단위: 천 원, %)

연대별 지역별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합계
1960년대	36,295 (8.31) <0.34>	43,469 (9.95) <6.42>	122,824 (28.13) <3.25>	117,013 (26.80) <1.37>	117,013 (26.80) <3.10>	436,614 (100.0) <1.58>
1970년대	228,027 (17.75) <2.13>	115,232 (8.97) <17.03>	115,232 (8.97) <3.05>	396,119 (30.84) <4.62>	429,491 (33.44) <11.37>	1,284,101 (100.0) <4.66>
1980년대	4,065,221 (37.90) <38.02>	471,951 (4.39) <69.74>	1,201,324 (11.19) <31.77>	3,292,931 (30.69) <38.41>	1,694,734 (15.80) <44.88>	10,726,161 (100.0) <39.00>
1990년대	5,510,705 (49.48) <51.55>	21,549 (0.19) <3.19>	48,833 (0.43) <1.29>	4,126,514 (37.05) <48.14>	1,428,288 (12.82) <37.82>	11,135,889 (100.0) <40.49>
2000년~현재	850,000 (21.71) <7.95>	24,500 (0.62) <3.62>	2,293,000 (58.58) <60.64>	639,600 (16.34) <7.46>	107,000 (2.73) <2.83>	3,914,100 (100.0) <14.23>
합계	10,690,248 (38.87) <100.0>	676,701 (2.46) <100.0>	3,781,213 (13.75) <100.0>	8,572,177 (31.17) <100.0>	3,776,526 (13.73) <100.0>	27,496,865 (100.0) <100.0>

표 12에서 보면 제주도 내 행정 단위별 기증 액수의 연대별 흐름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일 제주인의 기증 건수는 총 6,054건 (27,496,865,000원)이고, 이중 제주도 전체 638건, 제주시 786건, 서귀포시 742

건, 북제주군 2,283건, 남제주군 1,605건으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가장 많다.

전체적으로 건수 면에서 북제주군이 기증 건수, 기증 액수 면에서 가장 많은데, 이는 재일 제주인의 숫자와 재일 제주 마을 단위의 친목회 활동의 활성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반증해준다. 즉 재일 제주인의 일본 내에서의 경제 활동은 물론 제주에서의 기증 현상 역시 재일 제주인의 인적 네트워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활발한 북제주군이 지역사회 기증 액수, 건수가 가장 많다고 여겨진다.

이는 도일 동기, 제주에서의 의식, 문화적 배경과 연관이 있다. 한편 제주시, 서귀포시의 지역사회 공헌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행정구역 편성과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도시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마을 단위 향리 친목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재일 제주인의 기증은 마을 친목회 단위의 노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小川伸彦·寺岡伸梧, 1995: 86). 즉 재일 제주인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표 13에서 지역별 기증 건수를 살펴볼 때도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여전히 많다. 여기에서 제주도가 건수에 비해 기증 액수가 많은 것은 제주도 수준의 기증인 경우 일정 정도 이상의 경제적 성취가 있는 개인인 경우가 많고 기증액 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즉 전도 수준의 기증인 경우 사회적 명예, 위신, 체면, 경제적 성취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 증가, 경제적 성취의 사회 환원의 성격이 나타난다고 여겨진다.

표 13 지역별 기증 건수 추이

(단위: 건, %)

연대별\지역별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합계
1960년대	41 (2.76) <6.43>	237 (15.95) <30.16>	274 (18.44) <36.93>	518 (34.86) <22.69>	416 (28.00) <25.92>	1,486 (100.0) <24.55>
1970년대	182 (7.6) <28.53>	322 (13.46) <42.24>	272 (11.37) <36.66>	848 (35.44) <37.15>	769 (32.14) <47.92>	2,393 (100.0) <39.53>
1980년대	314 (22.92) <49.22>	143 (10.44) <18.20>	117 (8.54) <15.77>	457 (33.36) <20.02>	339 (24.75) <21.12>	1,370 (100.0) <22.63>
1990년대	94 (12.12) <14.74>	80 (10.31) <10.18>	70 (9.02) <9.44>	453 (58.38) <19.85>	79 (10.18) <4.93>	776 (100.0) <12.82>
2000년~현재	7 (24.14) <0.11>	4 (13.80) <0.05>	9 (31.04) <1.22>	7 (24.14) <0.03>	2 (6.90) <0.01>	29 (100.0) <0.04>
합계	638 (10.54) <100.0>	786 (12.99) <100.0>	742 (12.26) <100.0>	2,283 (37.71) <100.0>	1,605 (26.52) <100.0>	6,054 (100.0) <100.0>

5. 기증측의 변천과 '고향의 범위'의 변화

이 절에서는 기증을 받는 제주 사회의 지역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 14는 위 표 12과 표 13을 기증측의 변화 관점에서 종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표 14를 통하여 제일 제주인 애향심의 구체적 실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표 14 단체별 기증액·건수의 추이

(단위: 천 원, 건, %)

		전도	지역	합계
1960년대	기증액	39,295(8.31)	400,319(91.69)	436,614(100.0)
	기증 건수	41(2.76)	1,445(97.24)	1,486(100.0)
1970년대	기증액	228,027(17.75)	1,056,074(82.25)	1,284,101(100.0)
	기증 건수	182(7.61)	2,211(92.39)	2,393(100.0)
1980년대	기증액	4,065,221(37.90)	6,660,940(62.1)	10,726,161(100.0)
	기증 건수	314(22.92)	1,056(77.08)	1,370(100.0)
1990년대	기증액	5,510,705(49.48)	5,625,184(50.52)	11,135,889(100.0)
	기증 건수	94(12.12)	682(87.88)	776(100.0)
2000년 ~현재	기증액	850,000(21.71)	3,064,100(78.29)	3,914,100(100.0)
	기증 건수	7(24.14)	22(75.86)	29(100.0)
합계	기증액	10,690,248(38.37)	16,806,617(61.73)	27,496,865(100.0)
	기증 건수	638(10.54)	5,268(89.46)	6,054(100.0)

표 14를 살펴보면, 1960년대 이후 제일 제주인의 기증액, 기증 건수 모두 군 단위의 규모가 크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1970년대 이후에는 기증액, 기증 액수 모두 전도 단위의 기증이 증가하고 있다. 1980~90년대에는 기증 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 액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또한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증 건수에 비하여 기증 액수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다. 이는 지역, 마을 단위의 기증액 규모보다 도 단위의 기증액 규모가 훨씬 크고, 기증 규모도 발전기금, 체육성금 등 현금인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런 현상은 제주도 측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령 예를 들면 제주대학교 총장이 발전기금 모집 차 일본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거나

체육회 성금모집과 같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주도 내의 소년체전, 전국체전 등의 경기를 위해 제일 제주인들에게 기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실현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1990년대의 통계에서 기증 건수가 12.12%, 기증액 비율이 49.48%를 차지하는 것은 제일 제주인의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해양연구소 건립자금 기증 등에 기인한다. 그런데 2000년 통계에서는 오히려 기증 건수 10.54%, 기증액 38.37%인 것은 2002년 서귀포시 강정동 복지회관 건립 기증액에서 기인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제주인의 고향 제주에의 기증은 초기에는 고향 제주도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과의 경제적 격차에 대한 인식, 과거 경제적으로 낙후된 고향 제주도에 대한 인식 등이 작용하여 지역적, 사적인 기증이 많이 이루어진 결과이며, 점차 기증의 동기가 사회적 위신, 명예 등으로 변화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제일 제주인들의 기증과 제주 사회의 변화

1) 기증 동기의 변화

제일 제주인들의 기증 동기의 변화는 제일 제주인 기증의 역사를 기증선(寄贈線), 기증측(寄贈側)의 차원에서 재정리하거나 혹은 기증시 나타나는 '고향'에 대한 개념의 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기증액이나 기증물품 내용을 살펴보다도 지금까지 제일 제주인들이 기증의 변천을 알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앞서 본문에서 근거로 제시한 표들과 이 표들의 분석을 토대로 제일 제주인들의 기증 동기를 요약하면, 초기에는 애향심, 수구지심, 경제적 격차에 대한 동정적 시각, 경제적 우월감의 표현에서 점차 경제적 성취에 대한 물적인 표현, 명예,

체면 등의 요소가 나타나며, 또한 2세, 3세에 대해 고향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부분적으로는 제주도에 있는 제일 제주인 소유의 재산권 행사의 한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2) 기증에 대한 제주 사회 인식의 변화

제일 제주인들의 기증에 대한 제주 사회의 인식 변화는 직·간접적인 기증 경험을 가진 제주도민들의 각종 행태와 이와 관련된 제주도 내 신문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아울러 기증 경험을 가진 제일 제주인들의 사례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초기에는 제일 제주인들의 기증에 대한 요구와 기대 수준이 점차 증가했고, 기증의 일차적 수혜자인 제주 사회에서 제일 제주인 기증에 대한 의존감이 심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점차 기증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수혜자인 제주도민의 감동이나 고마움이 감소했고 아울러 제주 경제가 향상됨에 따라 기증에 대한 욕구도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제일 제주인의 기증 행위에 대한 지역사회의 보상과 격려도 미비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로 인한 1세대의 기증 행위에 대한 2·3·4세대 제일 제주인들의 실망이 확산되기도 했다.

3) 제일 제주인의 기증과 지역사회 발전

초기에는 실질적인 생활개선, 경제 성장의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었다. 점차 지역사회 개발, 관광, 새마을사업에 기여했으며, 이후 교육, 문화, 체육 분야에 기여했다.

4) 기증 요청선의 변화

초기에는 마을 단위, 개인, 친족 단위에서 점차 지역사회 개발과 발전을 위한

군 단위, 전도 단위 수준으로 변화한다. 이는 고향에 대한 '범위'의 확대로 해석할 수 있다(小川伸彦·寺岡伸悟, 1995: 88).

5) 제주 경제에 미친 영향

재일 제주인의 기증이 제주 경제에 미친 영향을 보면 초기 제주도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향상을 위해 1969년과 1970년 2차에 걸쳐 감귤 묘목 40만여 본을 보내왔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감귤 산업이 활성화되었고, 이는 제주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1970년대, 1980년대에는 새마을운동, 전국소년체전, 88올림픽, 한라문화제, 관광산업 등 제주지역의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재일 제주인들의 제주 경제에의 공헌은 당연한 일, 다분히 의례적인 것으로만 인식되어 점차 그 의의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실태를 고찰해 봄으로써, 향후 재일 제주인을 다루는 연구 분야에서 연구 주제를 확장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 주제들이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출신자의 동경지역의 업종 분포를 보면 음식업이 27%를 차지하고 있어 가방제조업 21%보다 다소 많은 편이며, 다음으로 신발제조업이 16%, 오락업 15%, 음식업 10%, 기타 11%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대판지역의 업종 분포는 신발제조업이 20%를 차지하고 있어 음식업 17%보다 조금 많은 편이며, 다음으로 오락업 17%, 건설업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제일 제주인의 업종은 동경지역에서 음식업과 가방제조업, 대판지역에서 신발제조업, 음식업, 건설업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들 업종은 제일 한국인의 업종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제주도 출신자들의 경제 활동 기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제일 제주 상공인의 지역별로는 북제주군 출신자가 105명(42.3%)을 차지하고 있어 남제주군 65명(26.2%)에 비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요인 등으로 인해 많은 북제주군 출신자들이 일본으로 이주하여 대판지역에서 상공업 활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셋째, 제일 제주 상공인의 기업 형태별로는 주식회사가 161명(64.9%)을 차지하고 있어 공업소 38명(15.3%)보다 많은 비중이며, 다음으로 개인 21명(8.5%), 유한회사 20명(8.1%)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60대 제주 상공인은 다른 기업 형태에 비해 주식회사 형태로 상공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제일 제주 상공인의 연령별로는 60대가 92명(37.1%)를 차지하고 있어 70대 54명(21.8%)보다 많은 편이며, 다음으로 50대 49명(19.7%), 40대 28명(11.3%)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 출신자로서 제일 제주 상공인 1세에 해당되는 연령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80대 이상 제주 상공인은 현재까지 후계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제일 제주 상공인의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9명(48.0%)을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32명(12.9%)보다 상당히 많은 편이며, 다음으로 판매업 27명(10.9%), 파친코업 16명(6.5%)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즉 제일 제주 상공인은 신발, 플라스틱, 봉제 등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상공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일 제주 상공인은 60대 이상으로 제조업 등에서 가장 많은 상공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재일 제주인의 기증을 살펴보았다. 재일 제주인 기증은 가계소득 향상·지역사회 개발·교육 발전·경제 발전 등 제주도 전반의 총체적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재일 제주인들의 기증 실적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규모면에서 축소하고 있고 기증물과 기증선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기증 규모 축소는 향후 재일 제주인들과 제주도, 제주도민과의 관계와 교류 전개에 시사하는 바 크다. 이것은 그동안 따뜻한 인간적 관계나 교감이 없이 투자나 기증만이 제주인의 유일한 관심사였고, 이로 인해 재일 제주인들은 실망과 허탈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안타깝게도 제주와 재일 제주인 사회가 서로 갈등이 조장되면서 불신의 관계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확대된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재일 제주인·재일 제주인 사회·재일 제주인 기증에 대해 재조명하고 재인식할 수 있는 학문적 연구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 제주와 재일 제주인 사회는 불신과 갈등을 넘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향후에는 단순한 물질적 의존관계에서 벗어나 인적·문화적 상호 교류를 통해 제주도 미래를 함께 엮어갈 공동체적 관계망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재일 한국인이 일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재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향후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도 크게 다양해지고 점차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동진. 2005. “재일 제주인 사회의 형성과정과 변천.” 『재일 제주인의 삶과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외 학술세미나 자료집.
- 고광명·진관훈. 2004. “在日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제26집. 제주학회.
- 고광명. 2005. “在日 한국·제주 상공인의 실태에 관한 연구.” 『在日 제주인의 삶과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외 학술세미나 자료집.
- 신행철. 1997. “제주인의 정체성과 일본 속의 제주인의 삶.” 『제주도연구』 제14집. 제주도연구회.
- 양성중. 2005. “재일 제주인 연구의 현황.” 『재일 제주인의 삶과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외 학술세미나 자료집.
- 유철인. 2000. “제주 사람들의 생활세계에서의 일본.” 『한국문화인류학』 제33집(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 윤건자. 2002. “21세기를 향한 재일의 아이덴티티.”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광규. 1998. 『한국문화의 역사인류학』. 서울: 집문당.
- 이문웅. 1988. “재일 제주인 사회에 있어서의 지연과 혈연.” 『한국인류학회의 성과와 전망』. 서울: 집문당.
- 在日本濟州道民會. 1993. 『日本の濟州魂: 在日本濟州道民會30年史』. 제주: 나라출판.
- 제주도. 1991. 『愛郷의 보람: 재일동포 기증 실적』. 제주: 제주도.
- 제주도. 1996. 『재외제주도민회협의회 편람』. 제주: 제주도.
- 제주도. 1999. 『愛郷의 보람: 100만 제주인과 함께 21세기로』(증보판). 제주: 제주도.
- 제주도. 1999. 『재외제주도민회 편람』. 제주: 제주도.
- 제주발전연구원. 2000. 『100만 제주인의 사회적 통합 증진과 역량 극대화 방안 연구』.
- 진관훈. 2005. “재일 제주인들의 ‘고향’ 제주에의 기증에 관한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외 학술세미나 자료집.
- 濟州開發協會. 1981. 『漢拏山』. 東京: 濟州開發協會.
- 濟州開發協會. 2002. 『漢拏山』. 東京: 濟州開發協會.

- 在日濟州道親睦會. 1976. 『創立 10周年 記念史』. 東京: 在日本濟州道親睦會.
- 吳圭祥. 1992. 『在日朝鮮人企業活動形成史』. 東京: 雄山閣.
- 小川伸彦·寺岡伸悟. 1995. “在日社會から「故郷」濟州道への寄贈.” 『社會學論集』第2号. 奈良女子大學.
- 杉原 達. 1998. 『越境する民: 近代大阪の朝鮮人史研究』. 東京: 新幹社.
- 林永彦. 2004. 『韓國人企業家』. 東京: 長崎出版.
- 關西濟州道民協會. 2004. 『關濟會10年の歩み』.
- 高鮮徽. 1996. 『在日濟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 關東地方を中心に』. 東京: 新幹社.
- . 1998. 『20世紀の滯日濟州島人 — その生活過程と意識』. 東京: 明石書店.
- 高東勳. 1999. “在日韓國人の經濟活動に關する史的分析研究: 濟州島出身者の場合を中心として.” 『論文集』第5号. 濟州觀光大學.
- . 2001. “濟州島出身者の日本移住に關する研究.” 『漢拏山』第8号. 在日本濟州道民協會.



고광명·진관훈, 제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투고일: 2005. 12. 7, 게재결정일: 2006. 12. 30)